



보도 일시	2023. 2. 1.(수) 06:00 (수요일 석간)	배포 일시	2023. 1. 30.(월)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행정처	책임자	부 장 김은창 (033-769-9391)
		담당자	계 장 김동섭 (033-769-9403)

국립공원공단, 페트병 재활용 친환경 순찰복 착용한다

-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2월 1일부터 전 직원 대상 순찰복 착용 -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2월 1일부터 현장근무 직원이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순찰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 순찰복은 국립공원공단이 탄소중립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과 실천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버려지는 페트병에서 생산한 재생 섬유로 순찰복 상의 3종(동복, 춘추복, 하복)을 제작한 것이다.
- 국립공원공단은 친환경 순찰복 제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전국 국립공원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착용했다.
- 이후 착용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활동성과 기능성 부분을 개선했고, 올해 10월까지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 전 직원에게 순찰복 2만 2,465벌을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 순찰복 1벌 당 평균 13개의 폐페트병이 사용됐으며, 올해 보급되는 순찰복에 쓰인 폐페트병 수를 계산해 보면 약 29만 2천여 개로(500ml)* 추정된다.

* 500ml 페트병 29만 2천개 재활용 시 약 3,122kg의 탄소저감 효과 발생

○ 해당 순찰복에 사용한 친환경 소재는 공인 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의 검사 확인 거쳤으며, 재생 섬유 함유량은 동복 상의 38%, 춘추복 상의 40%, 하복 상의 58%이다.

* FITI시험연구원: Friend of Industry Technology Information Testing & Research Institute의 약자로 섬유, 산업 자재, 환경 자재 등을 대상으로 시험분석, 품질검사, 품질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친환경 순찰복을 국민들이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 본사 홍보관(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및 치악산국립공원 체험학습관(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891-1)에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친환경 순찰복 착용 체험관을 운영한다.

○ 아울러 기존에 실시했던 친환경도시락 및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비롯해 친환경 순찰차량 운영 등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환경에 대한 상징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이번에 제작한 친환경 순찰복을 모범적으로 착용하여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라며, “향후 순찰복뿐만 아니라 근무복 등 다른 종류의 복제에도 친환경 의류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관련 사진.

2. 질의응답. 끝.



페트병 재활용 친환경 순찰복 착용 사진



페트병 재활용 친환경 순찰복 착용 사진



페트병 재활용 친환경 순찰복 착용 사진



페트병 재활용 친환경 순찰복 착용 사진

1. 페트병으로 국립공원 순찰복 만들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거죠?

- 페트병으로 친숙한 PET를 가늘게 실로 뽑아낸 것이 폴리에스터로, 페트병과 옷감의 폴리에스터가 같은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2. 공단의 복제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 공단 복제 30종 중 신발, 부속물(허리띠 등), 보조복(임부복 등)을 제외한 정복, 근무복, 순찰복, 모자 등 주요 복제 13종 중 순찰복(동복, 춘추복, 하복) 3종의 친환경 복제를 이번에 제작하였습니다.

3. 공단복제 중 친환경 복제의 제작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2022년 ~ 2023년 제작하는 국립공원 복제 중 친환경 복제(순찰복)을 27.8% 제작 하였습니다

4. 국립공원에서 페트병을 활용하는 등 친환경 복제의 추가 제작 계획은 있는지?

- 2년간 친환경 순찰복을 착용 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활동성, 기능성 등을 점검하여 2024년부터 근무복 등 추가 제작 여부를 검토 할 계획입니다.

5. 페트병을 활용하여 친환경 순찰복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투명 페트병을 수거 후 세척, 분쇄, 칩 형태로 가공, 실형태로 추출, 원단제작, 친환경 순찰복 제작